이지언

: 코너주의, 막대 사이 이미터 정도,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 달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시야에 잘 안들어올 듯 또 오자마자 표지판이 있어서 중간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표지판을 새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신호판을 다는 식도 좋을 듯.

사거리가 크지 않고 학교 끝나도 어린이 보호구역 이어진다. 어디까지 이어지는 지 체크 해 보았고 ,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는 지점부터 역방향으로 시작(영상에서)

집앞에 유턴 구간이 있음, 유턴 구간이 시야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고가 날 수 있다.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듯. 유턴구간에서도 우리 기술이 유용하지 않을까.

신호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인도 조금만 벗어나도 알림 울리는 것 시스템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대략 200m정도의 구간이다. 우회전 할 때도 신호 안바꾸고 할 수 있다는 위험을 해결 할 수도 있을 듯. 거리 센서에서 알림 도착하는 시간차도 고려해봐야 할 듯

김영진

: 스쿨존 길이가 짧았음. 2차선도로, 펜스가 많이 쳐 있지 않았다. 애들이 차가 멀리 있었는데 뛰어감.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.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이 낮게 존재. 코너 바로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존재. 거리: 170m

김수연

: 칸막이 없는 스쿨존, 260미터, 도로 폭: 적음., 표지판이 낮음, 학교 앞 4거리 존재. 횡단보도 앞에 봉 존재. 스쿨존은 직선, 직선구간에는 칸막이 존재. 봉 사이는 1~2미터 존재. 4거리에서 사각지대에서의 안전확보가 중요해 보임. 스쿨존 끝나는 구간에 실버캐슬 존재 (주차장 부근이라, 횡단보도 없는 스쿨존) , 펜스가 없고,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다.

나여주

: 학교가 길의 맨 끝에 존재.(학교가는 차만 존재, 차들이 많지 않은곳), 스쿨존보다 오히려 다른 도로가 더 위험. 부분 펜스 존재(1m조금 넘음)// 210m스쿨존/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라 불법 주정차가 많지 않음. 펜스 길이 1.6m, 높이:90츠/ 한쪽만 펜스가 쳐져있음. / 큰 길가 외에 스쿨존에 작은도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위험해 보인다. / 3차선 도로인 경우에, 횡단보도에 신호를 잘 안지킨다. // 너비가 적은 횡단보도는 신호를 잘 안지킨다. / 신호등이 없는 구간도 많고, 그 구간에 불법주정차가 많다.

오병설

:학교를 둘러싼 4면이 전부 스쿨존임. / 정확한 스쿨존 시작구간은 파악하기 힘듦. // 학교앞 건물 사이 도로도 스쿨존임. 그 스쿨존은 좁은 골목인 데다가 펜스도 없어서 위험해 보임. // 한 변의 거리가 230m// 한쪽만 펜스가 있는게 의문. // 삼거리의 경우, 코너를 돌아서 지나갔을 때, 위험해 보임. //좁은 신호등은 잘 안지킴. // 작은 골목길의 경우, 더 위험할 수 있음. /

* 스쿨존인데 횡단보도인 구간만 하자. // 차도랑 인도가 구별된 스쿨존 구간에만 기술적용. (그 외에 구간은 딥러닝을 써야 할 것 같음)